



CONDUCTOR
GEMMA NEW

지휘 젤마 뉴

KBS
S.O.



SAXOPHONE
JESS GILLAM

색소폰 제스 길람

818TH

KBS교향악단
제818회 정기연주회

2025.9.25.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KBS S.O. 818TH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02-6099-7400
-  02-6099-7416
-  www.kbssymphony.org
-  facebook.com/kbssymphony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kbssymphonyorchestra](https://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번스타인 L. Bernstein	캔디드 서곡 Candide Overture	Ⓢ 5'
----------------------	----------------------------	------

존 애덤스 J. Adams	색소폰 협주곡 *한국 초연 Saxophone Concerto *Korean premiere I. Animato - Moderato - Tranquillo, suave 활기차게 - 보통 빠르기로 - 평온하고 부드럽게 (22') II. Molto vivo 매우 생기 있고 빠르게 (6')	Ⓢ 28'
-------------------	--	-------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	--------------	-------

코플랜드 A. Copland	교향곡 제3번 Symphony No.3 I. Molto moderato: with simple expression 매우 절제된 빠르기로: 단순한 표현으로 (11') II. Allegro molto 매우 빠르게 (8') III. Andantino quasi allegretto 약간 느리게, 거의 빠르게처럼 (10') IV. Molto deliberato - Allegro risoluto 매우 신중하게 - 단호하게 빠르게 (14')	Ⓢ 43'
--------------------	---	-------

Ⓢ 총 소요시간 : 약 110분 (인터미션 포함)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DUCTOR GEMMA NEW

지휘 젬마 뉴

‘독특한 감성, 그리고 디테일과 텍스처에 대한 높은 주의’(워싱턴 포스트)와 ‘프로그램 구성 능력’(뱅크버선)으로 유명한 뉴질랜드 출신의 지휘자 젬마 뉴는 현재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 고문이자 수석 지휘자이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객원 지휘자이다. 젬마 뉴는 2021년 권위 있는 게오르그 솔티 지휘 콩쿠르에서 수상했으며 2024년에는 뉴질랜드 공로훈장을 받았다.

젬마 뉴의 2024/25 시즌 주요 공연으로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웨일스 BBC 내셔널 오케스트라·합창단, 브뤼셀 필하모닉,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라하 필하모니아, 무지크콜레기움 빈터투어와 첫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세인트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줄리어드 오케스트라를 다시 지휘한다. 영국과 유럽에서도 인기가 높은 젬마 뉴는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멘델스존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산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스카나 오케스트라,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다시 지휘한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 고문이자 수석 지휘자로서의 세 번째 시즌을 맞은 젬마 뉴는 2024년 가을 웰링턴, 헤이스팅스,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일련의 무대를 지휘하면서 라일 크레스웰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선보이며,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The Planets: Elgar & Holst>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아 사리아호의 <소행성>의 뉴질랜드 초연과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와 엘가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였다.

최근 시즌 동안 젬마 뉴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뱅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의 정기공연을 처음으로 지휘했다. 2024년 5월에는 촉박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과 시애틀 심포니에서 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무대는 첫 정기공연 지휘였다. 2024년 여름에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황위의 <City of Floating Sounds>의 세계 초연을 지휘했고,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2년 연속으로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BBC 프롬스에 참여했다.

젬마 뉴에게 2023/24 시즌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서 9번째이자 마지막 시즌이었다. 젬마 뉴는 재임 기간 동안 해밀턴 필하모닉의 예술적 우수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 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캐나다 작곡가들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환경에서 선보이는 ‘Intimate and Immersive’ 시리즈를 시작했다. 젬마 뉴의 리더십 하에 해밀턴 필하모닉은 대담한 프로그램 구성을 선보이며 많은 청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제임스 에네스, 티모시 추이, 야니나 피알코프스카, 스티어트 굿이어 등 캐나다를 대표하는 솔로리스트들과의 협업이 두드러졌다.

젬마 뉴는 네 시즌 동안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세인트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주지휘자와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LA 필하모닉의 두다멜 지휘 펠로우이자 탕글우드 음악센터의 지휘 펠로우였던 젬마 뉴는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 미국 솔티 재단 커리어 지원상을 수상했고, 2021년에는 게오르그 솔티 지휘상을 수상했다.

SAXOPHONE JESS GILLAM

색소폰 제스 길럼



제스 길럼은 색소폰계의 젊은 거장으로, ‘독창적이고 활발한’(더 타임즈) 무대 매너와 ‘자연스러운 기교와 끝없는 표현력’(아츠 데스크)으로 주목받고 있다. BBC 프롬스 ‘라스트 나이트’에 등장한 역대 최연소 솔리스트로 주목을 받으며,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공연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BBC 라디오 3의 최연소 진행자로서 주간 프로그램 <This Classical Life>로 다수의 수상을 기록하며 방송에서도 유리 천장을 깨고 있다.

제스 길럼은 색소폰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신작 초연에도 힘쓰고 있다. 2024년 BBC 프롬스에서 칼 젠킨스의 <Stravaganza> 런던 초연, 링컨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및 여러 유럽 오케스트라와 안나 클라인의 <Glasslands>를 초연했으며, 2025년 2월에는 다니 하워드의 색소폰 협주곡을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과 세계 초연한다. 로열 앨버트 홀의 협력 예술가이자 맨체스터 카메라타의 예술 파트너로도 활동 중이다.

그녀는 런던 심포니, 뮌헨 필하모닉, 베를린 도이치 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카네기 홀, 콘서트헤바우, 빈 콘체르트하우스 등 주요 홀에서 리사이틀을 열었다. 유럽콘서트홀협회 선정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받았으며, 슬레스비히홀슈타인, 하이델베르크 봄, 아스펜 페스티벌 등에도 참여했다.

2019년에는 자신만의 밴드 ‘제스 길럼 앙상블’을 결성하여 C.P.E. 바흐, 바바라 톨슨, 류이치 사카모토, 비요크 등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을 장르 혼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앙상블의 앨범 <TIME>은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에서도 활약 중인 제스 길럼은 <This Classical Life> 진행 외에도 BBC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녀는 데카 클래식과 전속 계약을 맺은 유일한 색소포니스트로, 데뷔 앨범 <Rise>와 <TIME> 모두 영국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BBC ‘올해의 젊은 음악가상’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된 최초의 색소포니스트였으며, 클래식 브릿 어워드를 수상하고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다. 현재도 고향 컴브리아주에서 콘서트 시리즈를 이어가며, 음악 교육 후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BERNSTEIN



ADAMS



COPLAND

KBS교향악단 제818회 정기연주회 <사운드 뉴 프론티어>는 20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 미국 음악이 이룩한 대담한 혁신의 여정을 세 작곡가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미국 역사를 관통해 온 ‘새로운 개척지(New Frontier)’라는 화두 아래, 아론 코플랜드(1900~1990)는 미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었고, 레너드 번스타인(1918~1990)은 그 토대 위에서 다채로운 실험을 펼쳐 장르와 시대를 잇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존 애덤스(1947~)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현대음악이 지닌 다양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해 왔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자신만의 언어로 ‘아메리칸 사운드’라는 미학적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하며, 진화하는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을 음악으로 그려낸 선구자들이다.

번스타인
L. Bernstein

캔디드 서곡
Candide Overture

작곡연도 1956년

초연 1956년 12월 1일, 미국 뉴욕

편성 플루트 2, 피콜로, 오보에 2, 클라리넷 2, Eb클라리넷, 베이스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베이스드럼, 심벌즈, 스네어드럼, 테너드럼, 트라이앵글, 글로켄슈필, 실로폰, 하프, 현 5부

연주 시간 약 5분

레너드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은 18세기 볼테르가 쓴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오페레타의 도입곡이다. 1956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 오페레타는 당대의 문학계 거장 릴리안 헬먼과 시인 리처드 윌버까지 의기 투입한 야심작이었지만, 전통적인 뮤지컬 문법을 벗어난 실험적 시도로 인해 초연 당시에는 73회 공연 후 막을 내린 “눈부신 실패작”로 평가되었다. 당시 번스타인은 초라한 성적표 앞에서 실망하지 않았으며, 이 음악이 지닌 음악적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번스타인은 캔디드에서 주요 선율을 압축한 서곡만 따로 떼어내어 편곡을 진행했다. 이어 그는 극장용 악보를 토대로 관현악 편제를 한층 넓히되, 세부만을 가볍게 손질하여 콘서트홀에서도 본래 작품이 지닌 음악적 윤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듬었다. 이렇게 재탄생한 캔디드 서곡은 1957년 1월 뉴욕 필하모닉 정기연주회에서 번스타인 자신의 지휘로 콘서트용으로 초연되었다. 이후 이 작품은 출판된 지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200회 이상 연주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 서곡은 밝고 재치 넘치는 브로드웨이의 감성을 정통 소나타 형식에 녹여 클래식 교향곡에 필적할 만큼 견고한 구조를 갖췄다. 도입부 팡파르(장 7도 도약)는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모토 동기로 기능하며, 뒤이어 오페레타의 듀엣 〈Oh, Happy We〉와 아리아 〈Glitter and Be Gay〉에서 가져온 선율들이 빠른 전개 속에서 유기적으로 교차·발전한다. 현악 솔로와 목관이 주고받는 재치 있는 대화에 타악기의 경쾌한 리듬이 더해져 다채로운 색채가 빛어지고, 종결부에서는 로시니 오페라 서곡을 연상시키는 눈부신 크레센도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번스타인의 독창적 크로스오버 정신과 교향악적 기법이 결합한 이 서곡은, 오늘날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즐겨 연주하는 대표적 오프닝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존 애덤스 J. Adams	색소폰 협주곡 Saxophone Concerto	*한국 초연 *Korean premiere
작곡연도	2013년	
초연	2013년 8월 22일,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편성	알토 색소폰 독주, 플루트 2, 피콜로, 오보에 3(잉글리시 호른 1대를 겸함), 클라리넷 2, 베이스클라리넷, 바순 2, 호른 3, 트럼펫 2, 하프, 피아노, 첼레스타, 현 5부	
연주 시간	약 28분	

《색소폰 협주곡》은 21세기 관현악법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13년 8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작곡가인 애덤스 본인 지휘와 색소폰 연주자 티모시 맥앨리스터 협연으로 세계 초연 되었으며, 이번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통해 국내 청중들에게는 처음으로 선보인다.

애덤스는 어린 시절 재즈와 록 음악에 심취하고 클라리넷을 전공하며 색소폰이라는 악기에 일찍부터 익숙했다. 그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색소폰이 여전히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을 깨고, 이 악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다. 이전까지 색소폰은 라벨, 프로코피예프, 번스타인 같은 거장들의 작품에서 간헐적으로 독특한 음색을 더하는 정도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애덤스는 이 협주곡을 통해 색소폰을 관현악의 중심축으로 과감히 부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더 나아가 색소폰이 재즈 음악에서 보여준 다채로운 표현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아메리칸 사운드’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 음악은 표면적으로 재즈 스타일을 모방하지는 않는다. 즉흥 연주에 의존하기보다 치밀하게 조직된 구조 안에 재즈 어법이 스며들도록 설계한 것이다. 예컨대, 애덤스가 애호하는 비밥(bebop) 특유의 분산화음 진행과 리듬 패턴이 작품 전반에 배어 있지만, 미니멀리즘적 반복과 투명한 화성 어법을 융합함으로써 독자적 색채가 드러난다. 이는 스탠 게츠나 존 콜트레인 같은 전설적인 재즈 연주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오마주(헌정)인 동시에, 클래식 색소폰이 지닌 우아한 선율과 브로드웨이적 세련미까지 담아내려는 작곡가의 의지를 반영한다.

작품은 두 개의 큰 악장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악장**은 빠른 템포와 느린 서정적 에피소드가 교차·결합된 장대한 형식을 취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악장**은 펑크(funk) 리듬을 표방하는 빠르고 격렬한 론도 형태로 압축된다. 이는 애덤스가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피아노 협주곡(Century Rolls) 등에서 즐겨 탐구해온 형식으로, 전통적인 3악장 구성 대신 1악장과 2악장을 합쳐 장대한 제1부를 마련하고, 화려한 피날레에 해당하는 제2부로 곡을 마무리한다는 특징이 돋보인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전통적인 타악기를 거의 배제하고도 색소폰이 지닌 리드미컬한 에너지를 극대화했다는 사실이다. 대신 피아노와 첼레스타가 맑은 타건 음색을 보강하고, 대규모 현악 섹션이 색소폰의 힘찬 소리를 탄탄히 떠받친다. 재즈 드럼 세트 없이도 색소폰 특유의 박력 넘치는 리듬감이 살아나도록 하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전자음향 기기에 익숙한 애덤스가 이 곡에서 신시사이저를 철저히 배제하고 전통 악기만으로 사운드 팔레트를 구성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존 애덤스의 색소폰 협주곡은 재즈와 현대 클래식을 폭넓게 가로지르는 작곡자의 음악 세계가 한데 어우러진 걸작이다. 이 곡을 통해 색소폰은 오케스트라의 한가운데에서 고유한 음색과 폭넓은 표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애덤스가 꿈꿔온 새로운 미국 음악을 한층 더 명확하게 그려냈다.

코플랜드 A. Copland	교향곡 제3번 Symphony No.3
작곡연도	1944년~1946년
초연	1946년 10월 18일, 미국 보스턴 심포니홀
편성	플루트 3(피콜로를 겸함), 피콜로, 오보에 3(잉글리시 호른 1대를 겸함), 클라리넷 2, Eb클라리넷, 베이스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4,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베이스드럼, 심벌즈, 서스펜디드심벌즈, 스네어드럼, 테너드럼, 트라이앵글, 탐탐, 글로켄슈필, 실로폰, 차임, 우드블럭, 힙, 라켓, 클라베스, 앤빌, 하프 2, 첼레스타, 피아노, 현 5부
연주 시간	약 43분

아론 코플랜드의 《교향곡 제3번》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희망과 활력을 음악적으로 구현한 대서사시적 작품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교향곡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1944년 쿠세비츠키 음악재단의 위촉으로 작곡을 시작하여 2년 뒤인 1946년에 완성되었고, 같은 해 10월 세르게이 쿠세비츠키가 지휘하는 보스턴 교향악단에 의해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다. 초연 당시 지휘자이자 위촉자였던 쿠세비츠키는 이 교향곡을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의 미국 교향곡”이라 극찬하며 그 역사적 중요성과 음악적 가치를 높이 샀다.

이 교향곡은 전통적인 4악장 구조를 취하면서도, 코플랜드 특유의 개방적인 화성과 명료한 대위법, 서정성이 큰 스케일의 서사 속에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진다. 특히 악장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주제적 요소를 펼쳐내지만, 몇몇 주요 동기가 재등장하거나 변형되어 전 악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든다.

제1악장 Molto moderato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세 개의 주제를 연속적으로 펼쳐내며 진행된다. 현악기의 광대한 도약 선율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는 관악기가 메아리치듯 이어받으며, 곧이어 비올라와 오보에가 노래하는 부드러운 찬가풍의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하여 분위기를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트롬본 독주로 시작되는 푸가풍의 세 번째 주제가 관악기군 전체로 확산하며 점차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 세 주제는 코플랜드 특유의 개방화성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넓은 미국 대지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울림을 만든다.

제2악장 Allegro molto

밝고 활기 넘치는 스케르초 악장으로, 코플랜드 특유의 생동감 있는 리듬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이 악장은 힘찬 팡파르 동기로 시작하여 목관악기의 재잘거리는 듯한 음형과 실로폰, 피아노 등의 경쾌한 음색이 더해져 넘치는 활기를 선사한다. 곧이어 클라리넷, 호른, 비올라가 유니즌으로 제시하는 주제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되는데, 이는 앞선 동기를 확장한 것으로 다양한 대선율과 겹쳐지며 점차 고조된다.

악장 중간에는 조성과 박자가 바뀌면서 예기치 않은 전원풍의 왈츠 선율이 나타나 잠시 평화로운 순간을 제공하지만, 이내 피아노의 화려한 경과구를 지나 다시금 행진곡 테마가 승리에 찬 분위기로 악장을 마무리한다.

제3악장 Andantino quasi allegretto

느리고 서정적인 악장으로, 전쟁 후의 사색과 추모의 감정을 담은 듯한 명상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악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트럼펫과 호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관악기와 타악기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현악기와 목관악기, 피아노와 첼레스타 등 제한된 악기 편성만으로 투명하고 신비로운 음향 세계를 그려낸다는 점이다.

악장 첫머리에서는 제1악장의 푸가 주제가 느린 템포와 반음계적 변화를 통해 새롭게 제시되는데, 그 분위기는 한층 엄숙하고 애가처럼 가라앉는다. 이어 플루트가 애수에 잠긴 선율을 내면적으로 노래하면, 현악기와 목관악기가 이를 번갈아 주고받으며 발전시킨다.

중간 부분에서는 뮤트 트럼펫이 살며시 제시하는 빠른 이중주 선율이 잠시 등장하여 미묘한 움직임을 부여하지만, 곧 피콜로와 오보에 등이 이를 이어받아 더욱 투명한 음색으로 변주한다. 다시 플루트의 애가풍 선율이 하프와 첼레스타의 반주 위에 마치 회상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점차 가라앉는 현악기의 유령 같은 하모닉스로 악장은 마무리되는 듯하다. 그러나 완전한 종결이 아닌, 마지막에 클라리넷과 바순 등 목관악기가 잔잔한 코랄 풍의 선율을 Ab를 축으로 하는 화음 위에 드리우며 독특한 긴장감을 남기는데, 이는 곧바로 이어질 피날레를 예고하며 다리 역할을 한다.

제4악장 Molto deliberato - Allegro risoluto

피날레는 제3악장으로부터 휴지 없이 직접 연결되어 시작된다. 이전 악장의 마지막 여운 위로 관현악의 음형들이 조용히 떠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코플런드의 유명한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의 주제 동기이다. 처음에는 낮은 음량으로 마치 숨죽인 듯 제시되다가, 갑자기 조성이 C장조로 전환되면서 원곡의 금관 팡파르와 팀파니 연타가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 이 극적인 순간은 마치 어둠을 가르고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듯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이어서 오케스트라의 다른 악기들이 차례로 합세하여 새로운 활기찬 주제를 펼쳐내고, 그 사이 사이 팡파르 동기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사라지며 상호작용한다.

음악은 점차 격렬한 클라이맥스로 치닫다가, 마침내 팡파르 주제와 제1악장의 주제들이 결합된 장대한 재현부로 돌입한다. 금관악기와 팀파니는 팡파르 선율을 변주하고, 현악기와 목관악기는 제1악장의 도약 진행 동기를 결합시키며, 모든 주제가 승리의 하모니로 하나가 된다. 최종적으로 거대한 포르티시모 화음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작품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글 | 이상권(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KBS교향악단

조앤 타워 /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모음곡 *아시아 초연
J. Tower / Suite from Concerto for Orchestra *Asian Premiere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P. I.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3번 a단조, 작품 44

S. Rachmaninoff / Symphony No. 3 in a minor, Op. 44

VIOLIN

RANDALL GOOSBY

바이올린 랜들 구스비

CONDUCTOR

PETER OUNDJIAN

지휘 피터 운지안

2025
10.17.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영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쿠크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9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이유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문바래니 (WDR 뮌헨 방송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플루트	유지홍 ^{수석}
클라리넷	조동현 ^{수석} 문빛찬 ^{부수석}
호른	Jacob Wilder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인턴십3기

제1바이올린	권예진, 김가연
제2바이올린	박선경, 임정민
비올라	송경민, 이태형
첼로	신소담
바순	심충현
호른	선수경
트럼펫	박찬영
트롬본	임상원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전의범 황세빈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윌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산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윤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김희진 포크가수, DJ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앵커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웅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섀리 포스터피딕
Life ON Sealy

K B S S O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III



N A T A L I E

KBS교향악단 X 나탈리 드세이

2025.11.13.THU 20:00

롯데콘서트홀



지중배(지휘), 나탈리 드세이(소프라노), 필립 카사르(피아노)

D E S S A Y

주최 / 주관 KBS교향악단 문의 02-6099-7400 티켓 ㉠12만원 ㉡10만원 ㉢7만원 ㉣3만원 ㉤1만원

예매 NOL ticket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